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물 이슈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하나로 채택돼 있다. 이 때문에 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발전 원동력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업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이 한뜻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 미션인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의 가치를 모두 창출하는 CSV(공유가치 창출)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물을 통해 행복을 실현한다는 뜻을 담아 '해피워터'를 사회공헌 통합브랜드로 정하고 물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가득 수(水)',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랑가득 수(水)', 긍정적 사회변화를 실현하는 '희망가득 수(水)' 등 다양한 테마로 기업 특성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임직원 자원봉사 단체인 '물사랑나눔단'을 2004년 7월 창단하고 임직원 모금액인 '물사랑펀드'와 회사에서 출연한 '매칭 그랜트'로 재원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공사는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해외봉사부문 대상, 사회공헌대상 CSV부문 대상, 아태 스티비상 기업 커뮤니케이션 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 산업의 특성을 살린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상생가득 수(水)' 활동은 물 이용 취약계층 및 물 소외지역을 지원해 물 복지를 확대하고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물 기반의 대표적 사회공헌 테마다.

또 2013년 10월부터 추진해온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1 미안마 짜육단 마을 파이프 매설
2 물이용 환경개선 행복가득수
3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4 의료봉사활동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노후수도 시설 교체 및 부엌, 욕실 등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 등 물 복지 사각지대에 수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까지 전국 454곳의 넓은 수도관, 싱크대 등 시설을 개보수해 약 1만1천460명이 이용하는 물 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공사는 '사랑가득 수(水)'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 및 물 문화 나눔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전문의료단체와 함께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펼쳐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약 3만8천명에게 양-한방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댐 주변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효나눔복지센터'를 건립해 독거노인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재가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희망가득 수(水)'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 멘토링'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생과 공사 직원의 진로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와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이들이 미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물의 소중함과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과학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물드림 캠프'를 2012년 시작했고, 공기업 최초의 스팀형(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기반의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물, 환경과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 총 91개의 기업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해 후 기업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공사는 각 기업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기술 지원 등 공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과 관련해 연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